

저금리·고물가 시대… 예금 대신 연금저축·ISA 주목

예금금리, 물가상승률 밀돌아
연금저축·IRP 절세효과 주목
ISA 비과세 혜택 활용도 늘어
저성장 기조에 수요 지속 전망

계속된 예금 금리 하락에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져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 드는 상황 이어서다. 저금리·고물가 기조에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금저축·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인형 IRP(퇴직연금)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이 취급하는 38개 정기예금(1년 기준)의 최고금리 평균은 연 2.57%다. 전월 취급금리 평균인 2.59%보다 낮아졌

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도 지난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된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금리는 2.27%까지 내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까지 내리면서, 예금 금리가 함께 하락한 영향이다.

금리 내림세에 금융소득 과세율(15.4%)을 고려한 실질 금리는 1%대로 하락했다. 과세율을 적용한 정기예금의 금리 평균은 최고금리 적용 시 2.17%, 기본금리 적용 시 1.92%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한 금리는 한은이 발표한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5월 말 기준)인 2.1%보다도 낮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도 미래의 구매력이 오히려 낮아지는 셈이다.

물가상승률이 예금 금리를 앞지르면서 연금저축·개인형 IRP(개인형 퇴직

연금)·ISA(자산관리계좌)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 상품도 중요해졌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 과세가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가일수록 절세가 중요하다. 세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연 최대 1100만원 이상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다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나 일시 지급 시엔 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가입 시 유동성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의무가입 대상인 DC

형·DB형와는 달리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예금·국채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선택도 가능해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 IRP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70%를 넘길 수 없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일시 지급이나 중도 해지 시엔 소득세가 발생한다.

ISA는 예금·펀드·ELS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이 판매 중인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IRP와 달리,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REITs) 등에도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 200만원(연 소득 5000만원 이내 라면 400만원) 이내의 순이익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ISA는 가입 시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적용되며, ISA를 통한 비과세 혜택은 연금저축·개인형 IRP의 한도와는 별도로 계산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준금리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예금 금리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기준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예금 금리도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펫보험 가입률 13%… ‘표준수가제’ 돌파구 될까

보험사 틈새상품에 정부 정책 시동
시장 판도 ‘분위기 반전’ 시험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었지만 보험 시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보험사들의 창의적 상품과 정부의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추진이 맞물리면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판이 바뀔지 이목이 쏠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에 달한다. 반려견(546만 마리)과 반려묘(217만 마리)만 합쳐도 760만 마리가 넘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친다. 이용의향은 높는데 실제 가입이 저조한 ‘통계 미스매치’다.

격차의 첫 번째 병목은 비용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월평



Chat GPT가 생성한 반려동물보험 이미지.

균 양육비는 19만4000원, 최근 2년 치료비 지출은 평균 146만3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보험 비가입 가구의 50.6%가 ‘월 보험료 부담’을, 35.8%가 ‘보장범위 협소’를 이유로 꼽는다.

황원경 KB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가구 91.7%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 가입한 가구는 12.8%에 불과했다”며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저해 요인 1위는 ‘월 납입 보험료 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격·보장’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초 ▲반려견 무계별 보장한도 차등화 ▲보호자 상급병원 통원 시 위탁비 실손 담보 등 두 가지 신위험 담보로 손보업계 첫 6개월 베타적사용권을 따냈다. 메리츠화재도 ‘유병력 간편심사형’ 상품을 선보여 기존 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의 가입길을 열었다.

시장 구조에도 변화가 닥친다. 국내 1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마이브라운’이 금융위원회 본허가를 받고 7월 중 영업을 앞뒀다. 전용 인프라·EMR(전자차트) 기반 자동심사 시스템을 내세운 ‘메기’의 등장이 손해를 예측과 청구 간소화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드라이브도 속도를 낸다. 이재명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 수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에서 시행되는 각종 진료 항목에 대해 일관된 가

격을 책정해 치료비 차이를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다만 과제도 산적하다. 가입자 불만 1·2위가 여전히 ‘보장범위·보험료’다. 앞선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반려가구 46.1%가 시장 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수가제를 꼽았으나 동물병원·수의계 반발이란 현실적 난관이 남아 있다. 전문 보험사 등장 역시 ‘소액단기보험’ 한계를 넘어 장기·대형사와의 공존 모델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료·보험’ 삼자 협의가 본 궤도에 오르면 적정 프리미엄 산정 근거가 마련돼 보험료와 보장불신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도입되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줄이고 다양한 특약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투명화가 펫보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포스코이앤씨가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사에서 ‘Gulf MTP LNG 터미널’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사랏 라타나바디 걸프 디벨로프먼트 사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태국 LNG 터미널

1.5조 규모 공사 수주

포스코이앤씨는 태국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걸프(Gulf) MTP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마타푸트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Gulf MTP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PTT의 자회사인 피티티 탱크 터미널이 공동 발주한 태국 최초의 민간 합작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이다.

이번 사업 수주는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광양·제주·애월·삼척 LNG 터미널과 태국 PTT·파나마 콜론 LNG 터미널 등 국내외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중국, 레바논 등 3개의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수주 경쟁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LNG 터미널 사업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LNG 탱크, 부두 시설, 기화 송출 설비 등 다수의 LNG 터미널 사업을 수행해 국내 유일의 자력 설계 기술을 갖춘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이라는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전지원 기자 jiw13@

대우건설, 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연쇄 접촉

“신규 가스전·석화 등 사업협력 앞장”

정원주 회장, 최고지도자 등 예방
현지 경제발전 사업 참여의사 전해

대우건설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정원주 회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국가최고지도자, 대통령, 각 부처 부총리 등 고위급 인사를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및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잇달아 예방한 정 회장은 “지난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우건설은 모든 건설 분야에서 글로벌 실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 및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비롯해 철도, 지하철, 초고층 빌딩 등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발전과 양국간 협력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전날인 27일에는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건설·전력·생산담당 부총리와 만나 국영화학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를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서의 참여기회를 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8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대우건설

망한다고 전했다.

바이무랏 안나맘메도브 부총리는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우건설이 시공한 석유화학 플랜트, 해저 침매터널 및 폐기물 매립장 등을 실제로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외에도 자원 재활용, 매립가스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우건설이 참여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29일에는 바티르 아마노브 석유·가스담당 부총리 및 막샷 바바예프 국영 가스공사 회장과 만나 신규 가스전 개

발사업에 대한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은 당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 시장 중 하나로 신규 시장 개척에 성공한 이후 사업 다각화 및 신속한 현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며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네트워크 강화 노력을 토대로 향후 주요 해외 전략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